

담양군 갈등조정위 지역갈등 '해결사'

지난해 출범 고충민원·사회갈등 등 조사·조정 역할 수행 창평 연화마을 축사 건축 주민 반대 적극 중재 합의 성과

담양군은 지난해 출범한 갈등조정위원회가 최근 창평면 연화마을 앞 축사건축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연화마을은 지난해 5월 마을 입구에 축사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축사건축주와 인허가를 내준 담양군을 상대로 약취

·소음·폐수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에 나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갈등조정위원회는 마을주민과 축사건축주, 건축인허가 부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현장과 연화마을을 방문하는 등 총 5회에 걸친 갈등 조정 끝에 최근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끝내냈다. 축사건축주는 축사 사육두수를 200두에서 160두로, 사육면적도 1903㎡에서 1496㎡로 각각 축소하고 담양군은 축사운영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담양군의 갈등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 등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군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의 조정 결과와 의견 사항을 수용해 군정에 반영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오늘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대립하는 갈등이 증가하면서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갈등조정위원회가 우리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해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길위의 첫봄, 달마고도 힐링축제' 열린다

30일 달마산 미황사 일원 17.74km 명품 둘레길 걷기

땅끝 해남의 달마산에 조성된 명품남도길 달마고도에서 봄맞이 힐링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은 30일 달마산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길위의 첫봄,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달마산에 조성된 달마고도(사진)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출발해 산 허리를 감아도는 17.74km의 둘레길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계를 쓰지 않고 돌 하나하나를 지게로 날라 조성, 2017년 조성 이래 걷기 여행객들이 꼽는 최고의 명품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봄빛 완연한 땅끝의 정취를 만끽할 달마고도 걷기행사를 비롯해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행사 전날인 29일 오후 7시30분에는 '우리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미의 특징'을 주제로 황지우 시인 특별강연이 미황사 자하루에서 열린다. 축제 당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미황사-관음암터-문수암터-문바우재-미황사(6.75km)를 걷는 명품길 힐링체험이 진행된다. 숲길을 걷는 동안 다양한 버스킹 공연도 만날 수 있다. 또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된다. 트리허그, 베스트 드레서, 가족단위 참여자와 10인 이상 단체참가자 인증샷 등을 SNS(페이스북 페이지 '해남만남')에 게시하면 해남 농수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강진 '벚꽃 삼십리 길' 봄나들이 오세요

30일부터 군동면 금곡사 일원서 봄맞이 축제

강진에서 호남 유일의 '벚꽃 삼십리 길'을 만끽 할 수 있는 풍성한 봄맞이 축제가 펼쳐진다. 강진군은 30일부터 이틀간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제2회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행사를 연다. 군동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장에서 펼쳐지는 풍물패 길놀이,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하는 벚꽃길 느끼게 걷기 등 축제의 흥을 돋우고 감성을 충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나만의 화전 부치기 시연 및 레크리에이션, 강진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드는 군동 메주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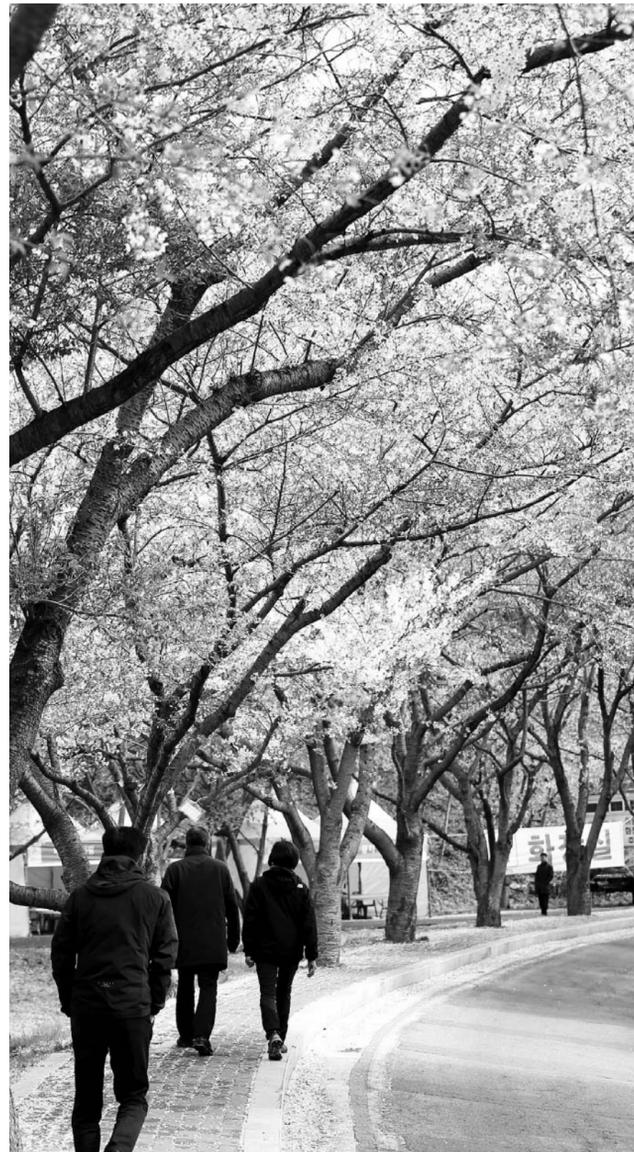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화순군,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에서 일주일 기간 머물며 농촌 체험, 영농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순읍 수만리 들국화마을-이서면 야사마을에서 운영하며 5일에서 최장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숙박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생활비는 본인 부담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운영하는 마을은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누리집(live.jeonnam.go.kr)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061-379-5442)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재재 기자 byj@



'벚꽃 삼십리 길' 함께 걸어요 30일부터 이틀간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제2회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행사가 열린다. 군동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은 수려한 경관에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강진군 제공>

신안군수배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30일부터 이틀간 장애물·마장마술 등 6개 부문

신안군 임자도서 '제1회 신안군수배 유소년 승마대회'가 열린다. 신안군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간 임자도에서 유소년 선수 52명과 학부모, 내외빈 100여명이 참여하는 신안군수배 유소년 승마대회가 개최된다. 대회는 30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31일 정오까지 장애물·마장마술 등 6개 부문으로 치러진다. 대회 기간 '2019년 전남 소년체전' 대표 선수 선발전도 포함돼 있다. 대회가 열린 임자 해변 승마장(사진)에서는 대평해수욕장 12km 백사장 경치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참가자와 관광객 모두에서 좋은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회는 미래 레저 산업으로 전망되는 말 산업(승마) 육성과 유·청소년의 다



양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신안군과 전남 승마협회 등 유관기관의 후원으로 개최한다. 군은 전국 최초로 유소년 승마단을 조직, 임자면 초등·중학생의 승마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대평해수욕장 일원에 승마 도로를 조성하는 등 유소년 승마대회의 흥행과 승마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담양군, '담양군사' 편찬 사업 추진

2020년까지 역사·문화·사회·경제분야 집대성

담양군이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를 집대성한 담양군사 편찬사업 추진한다. 담양군사 편찬사업은 담양문화원과 공동으로 202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집필, 간행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편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으로 22명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

쳤다.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전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중 관장이 위촉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1980년 이래 3차례 담양군지를 발간했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담양군사는 과거와 전통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의 생동하는 모습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매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